

신 앙

차 례

1. 공인종교
2. 민간신앙
3. 무속신앙

우리는 2박 3일 동안 서귀포시 남원2리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조사에서 남원2리의 신앙에 대해 조사하였다. 공인 신앙, 민간 신앙, 무속, 신앙으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원2리 주민들은 주로 무속 신앙과 공인 신앙 중 불교를 주로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 종교가 전래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며, 공인 신앙이 전래되기 전부터 무속 신앙이 주민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고 한다.

남원1리에 위치한 공인 신앙에 관해서는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하였으며, 마을 신앙에 대해서는 마을 토박이로 살아오신 노인 회장님을 통해 그 내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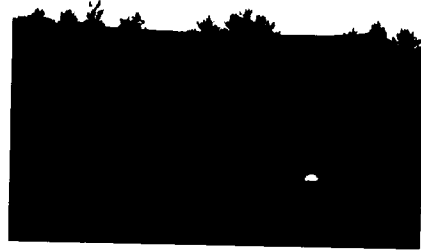
1. 공인종교

1) 불교

(1) 명칭: 선광사

- (2) 종파: 한국불교 태고종
- (3)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리 2439번지
- (4) 구성: 승려 2명, 합창단 50명, 신도수 500가구(서귀포지역 신도 포함)
- (5) 연혁: 선광사는 1942년 창건주 보화당법인 스님이 사유지인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리 2439번지(현재 사찰위치)에 사재를 들여 초가 3간의 법당을 건축하고 사찰명을 선광사(善光寺)로 하여 창건하였다. 1945년 1차 중건을 하여 목조기와 지붕으로 법당 50평을 신축하였으나 1948년 4·3으로 인하여 사찰을 남원1리 마을 안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다가 1955년 4·3이 평정되자 다시 현위치에 석조 함석지붕으로 된 법당 15평과 초가요사 17평 및 6평형 2동을 건립하였다. 1966년 석조 함석지붕으로 된 17평의 요사를 신축하였고, 1967년 제3차 중건 불사로 석조 스테트지붕으로 된 28평 법당을 신축하였다. 1974년 각 단 탕화조성 봉안을 하였고, 1978년 200관의 범종(梵鐘)을 주조하였다. 1980년 양옥으로 30평 강당 신축을 하였다. 1982년 10월 목담 큰 스님 사리탑을 건립하였고, 1983년 제4차 중건 불사로 철근 시멘트 전통 한옥 양식인 60평의 법당과 8평의 사천왕문(四天王門) 과 8평의 범종루를 신축하고 동조8척(銅造八尺)의 불상과 후불탱화 사천왕상을 새로 조성하여 봉안하였다. 1984년 1월 10일 제4차 중간불사를 회향하였다. 1994년 철근 시멘트 전통 한옥으로 연 100평의 요사와 6평의 정재소(淨齋所)를 신축하였다. 1996년 10월 본존 부처님 개금 및 단집 불사와 각단 탁자 개조를 하였고, 1997년 11월 26일 대시주 梁洪錫·玄己生 공덕비를 건립하였다.
- (6) 예불: 매일 오전 04:00, 오후 일몰 후
- (7) 선광사 소장 목판본류: 선광사에 소장된 전적은 불경을 비롯하여 사찰내의 각종 규정, 승려들의 문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모두 59종 164책에 이른다. 불교 경전이 16종 조사어록류가 33종, 의례류가 10종이다. 목판본과 필사본이 있는데 필사본은 모두 19세기 말 에서 20세기전반에 필사된 것이다. 근래 우리나라 사찰에 남아

있는 불서의 수량이 희귀한 실정인데, 제주도 소재 사찰의 불교전적은 전체적으로 190종 654책에 불과하다. 선광사에 이처럼 많은 불교전적이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들 전적은 본



래 경상남도 함양군 영원사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들이다.

<제보자: 성안스님(선광사 주지)>

2) 기독교

- (1) 명칭: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원교회
- (2)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56번지
- (3) 연혁: 남원교회는 1932년 10월, 제주노회 소속 이도종목사가 파송되어 남원리 99번지에 방 한 칸을 빌어 개척 전도를 시작하였다. 오성원 강기정씨 가정(부부)과 장년 10여명 및 유년 10여명의 신자를 얻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듬해 9월 7일 제주노회에서 남원교회 설립허락을 받게 되었다. 처음엔 예배를 오성원씨 자택에서 드리다가 1940년 남원리 150번지 대지 600평 초가 15평 매입하였다. 그러나 1942년 오성원장로(당시 입교인)가정은 중국 청도로, 현묘생장로(당시 입교인)가정은 제주시로 이거하게 되므로 당시 교회로 사용하던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매도금을 제주노회에 반납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여 오성원, 현묘생 장로가정이 돌아오고, 1947년 11월 제주시 서부교회(현 성안교회) 이운학목사가 남원 초등학교 교정에서 전도 집회를 하였다. 그 때 상당수의 결신자가 있었으나 믿음을 지킨 사람은 현재 김성립 권사이다. 오성원, 현묘생(현영립)씨가 중심이 되어 가정을 돌아가며

예배드렸다. 1950년 2월 1일 남원리 대지와 초가를 매입하여 교회를 재건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남원 고등공민학교를 남원면에서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1958년 5월 13일, 제 1대 오성원집사 장로 장립하였으며, 1965년 8월 15일에는 여전도회가 조직되었다. 1970년 9월, 마침내 교회가 자립하여 이후 청년회, 중등부, 남전도회(현 남선교회)를 조직하고, 1980년 3월 23일에는 유치원을 인가 받게 된다. 이후 규모를 늘려가며 1988년 남선교회가 제 1,2로 여전도회가 제 1,2,3으로 분리되었고, 1991년에는 남선교회가 1,2,3,4로 여전도회도 1,2,3,4로 분리되었다. 이후, 2008년 남원 열린도서관을 개관하여 오후 3시~저녁 9시까지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요양원과 양로원등의 기관에 봉사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병행 하고 있다.

(4) 예배시간

장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02:00

수요일예배: 11월~3월 오후 07:00, 4월~10월 오후 07:30

새벽기도회: 11월~3월 오전 05:00, 4월~10월 오전 04:50

교회학교

유치부/아동부: 오전 09: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09:00 토 오후 04:00

청년부: 낮 12:00

3) 원불교

(1)교명: 원불교 제주 남원 교당

(2)주소: 남원읍 남원리 1214-9번지

(3)연혁: 남원리의 원불교의 전통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맨 처음 포교활동은 원불교 서귀포당에서 한 교무가 남원리에 포교활동을 하면

서 전개되었으며, 현재 원불교 제주 남원 교당의 터는 남원리에 사시던 한 교무께서 기증하신 것으로 원래는 밀감 밭이라고 한다. 신도수도 현재 30명 정도로 타 종교에 비해서 그렇게 인원이 많은 편이 아니다. 인원이 적은 이유는 타의적인 이유보다는 자의적인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 원불교가 남원리에 포교가 활발히 되었을 때에는 교무의 수가 100명이 넘기도 하였으나, 교무(원불교에서 말하는 신자)들의 이동으로 인하여 현재 남원리 자체의 신도는 점점 줄어들어 현재는 30명, 원불교어린이집 아동까지 합쳐서 60명 선에 머물고 있다.

(4)법회시간: 법회는 일주일에 한번, 그 하루에 3번에 걸쳐서 법회가 집행된다. 하루에 3번에 걸쳐 법회가 진행되는 이유는 신도들의 시간 안배를 위해서이다. 일반법회, 어린이법회, 학생법회, 로 3번에 걸쳐서 진행되며 각각의 법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까지 일반법회, 2시부터 3시까지 어린이 법회, 5시부터 6까지 학생법회로 각각 시간이 있다. 이와 별개로 교사 집회는 일반집회와 달리 매주 월요일에 행해진다.

〈제보자: 오경도(31세)〉

4) 천주교

(1)교명: 천주교 제주교구 남원성당

(2)주소: 남원읍 남원리 1253-5번지

(3)연혁: 남원성당은 1956년, 남원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오갑순(요한나)이 어린이들을 모아 교리 공부를 실시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같은 해 8월, 서귀포 본당의 모 로베르트 신부에 의해 “남원 공소” 설정되어 남원 초등학교에서 첫 미사 봉헌을 하였다. 1959년, 모 로베르트 신부의 지원으로 남원리 초가집을 매입 공소로 사용하였다. 이듬해 엄요한 신부, 초대 유급 전교사 강봉주(아우구스티노)가 남원공소로 파견되었다. 1971년 평신도 사도회(초대 회장:현원평 프란

치스코)가 발족되었으며, 1976년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빛과 소금”(전 대건회)이 창단되었다. 1977년, 배 데스몬드 신부를 통해 공소 건물 신축 공사하였다. 1981년, 레지오 마리에 “도움이신 어머니” 브레시디움 창단되었다. 1988년 2월 10일, 서귀포 본당의 효돈공소가 본당으로 승격 남원공소 효돈 본당으로 이관하였다. 1990년, 부속 건물을 수녀원으로 개축하고, 공소에 “미리내 성모 성심 수녀회” 분원 설립하였다. 1997년, 남원 공소 본당 승격(초대 주임신부: 강형민 다니엘)하고, 기존의 건물을 사제관(30명)으로 개축하였으며, 비닐 하우스 교리실(90평) 건립하였다. 2000년, 성당 인근 부지 300평 매입 하여 이듬해 성당 신축 기공하고, 2002년에 성전을 완공하였다.

2. 민간신앙

민간신앙은 남원2리에 가장 깊이 뿌리내린 신앙으로서 가장 오래된 신앙이었으나, 현재는 그 영향력이 현재는 미미하다. 그리고 남원1리와 2리(상,하동)는 원래 한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나뉘져있다. 남원2리가 예전의 서웃귀, 의귀리가 예전의 동웃귀이다.

1) 포제

매년 정월 초 상징일(지금의 일요일과 같은 개념)에 토지지신에 올리는 제사이다. 풍년,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도량서직, 사변사두를 제물로 올렸다. 도량서직이란 도는 쌀, 량은 기장, 서는 수수, 직은 피로 네 가지 곡식으로 밥을 지어 올렸다. 사변사두는 변은 마른제수, 두는 젖은 제수로 변에는 형염(소금), 어수(말린 바닷고기), 녹포(사슴고기), 율황(밤)과 두는 청저(무채), 군저(미나리), 녹해(젖은사슴), 어해(젖은 바닷고기)와 돼지고기가 더해진다. 포제는 원래 한 부락이었던 상,하동(남원1리, 2리)이 운주 오름에서 같이 지낸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향교에서 문묘제례가 행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1400년대로 추정하고 있다. 제청하여(제관을 청함) 3박 4일 동안 정성을 들여 제를 지내는데 제관을 14명 정도 청했고, 제관은 외출과 귀가가 금지되었다. 또 제를 지낼 때는 금줄을 치고 유자나무에 가지를 금줄에 엮어서 젊은 여자들의 접근을 금하였다. 현재는 제관은 10~12명, 기간은 1박 2일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제 지내는 순서는 초헌 - 아헌 - 종헌 - 집례 - 대축 - 봉향 - 봉로 - 봉작 - 전작 순이다.

2) 수목신앙

오래전부터 마을에 있던 큰 나무로서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겼다. 그러나 태풍에 나무가 꺾여 자리만 남았었다고 한다. 나무는 꺾였지만 주민들은 나무를 신성하게 여겨서 그 터 주변으로 금줄을 쳐서, 소원을 빌며 돌을 쌓아올렸다고 한다. 이를 서낭당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도로를 포장해버려서 흔적이 없다.

3) 풍수지리

옛 사람들은 마을을 처음 만들 때 지세(地勢, 좌청룡 우백호)를 본다고 한다. 서의동에는 지세는 좋으나 한 군데가 허해서 그 허한 곳에 심은 것이 팽나무(수목신앙으로 신성하게 여긴 나무)라고 한다.

3. 무속신앙

1) 심방

심방은 자신의 조상이 돌아가셔도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며 곳을 하는데, 이를 '귀향풀이'라 한다. 사람들이 곳을 청했을 때, 의귀리 녀시오름

널당에 가서는 널당신에게 기원하는 곳을 한다. 또 곳을 청하는 사람의 집에 직접 가서 하는 곳도 있는데 조상신, 개인적인 기원을 위하는 곳이다. 남원에는 남원1리에 심방이 김평수(70세, 남)할아버지가 유일하다. 그런데 그 분은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도 아니다. 33세 때 신 내림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주관하는 큰 곳을 지내기도 하셨다고 한다. 현재 남원리에는 심방이었던 분들은 김평수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돌아가시고 없는 상황이다. 본래 후대로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고, 심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심방은 천민, 상민이라는 인식이 있어 부정적이다. 그리고 김평수 심방도 현재 남원리에 거주하고 있지만 활동 지역은 표선면 가시리이다.

2) 널당

의귀리 너시오름 자락에 있는 널당은 마을주민들이 찾아가서 심방을 모시고가서 곳을 벌이고, 제를 지내며 무사평안, 소원성취 등을 비는 곳이다. 매년 정월과 여름에 이곳에서 큰 곳을 벌였다고 한다. 그리고 남원리의 심방이 없어진 이후로는 널당의 신도들이 서귀포에 있는 심방을 초청해서 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 당에는 의귀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남원읍 전체의 주민들이 다 모여서 제를 지내곤 했다. 7일 연속으로 제를 지낸 적도 있다고 한다. 널당이 현재 의귀리에 있게 된 이유는 당을 만들기 위해서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곳이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적합한 장소가 서중천 너머의 의귀리 땅이었기 때문에 그 곳에 가서 당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 조사자 : 김경범(04), 고희준(05), 박아름(05), 김진형(08), 이동석(08), 송민수(09), 이영유(09)